



유혜리는 강렬한 색채와 즉흥적이고 표현적인 붓터치의 페인팅, 은유적이며 내러티브한 콜라주 드로잉, 기이한 형태의 작은 입체물 설치 작업 등 다채로운 형식과 스케일로 작업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보편적 삶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억압들이 충돌하면서 야기되는 절망적 심리 상태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투영되는 '나쁜 꿈의 이야기'처럼 전개된다. 강렬한 붓터치의 회화, 그리고 회화 속 형상들을 연상시키는 오브제들이 벽면에 아슬아슬하게 설치된 장면은 초현실적으로 어우러진다. 작가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면 평면과 입체, 추상과 구상, 아름다움과 역겨움, 즐거움과 폭력적인 것의 중간 지점에서 서로가 상충하면서도 공존하는 '균형 게임'을 즐긴다. 작품에는 터지고, 상하고, 찢어져서 자태를 알아볼 수 없이 왜곡된 요소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마치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법한 유년의 상처, 또는 어른이 돼서도 하나쯤 있을 수 있는 악덕 등을 그려 놓은 듯한 형상이 위협적이고 도발적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누구나 느끼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러한 심리적 요소들을 작품을 통해 뱉어 내어 관객에게 대리만족과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인간이 갖는 가치 경험 인식의 이중성에 관한 작가의 코멘트이다. 또한 관람객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한 심리적인 자아에게 말을 건네고 소통과 교류를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혜리 1970년 출생. 경북대 및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 졸업. 뉴욕 토마스어벤갤러리(2008, 2010)와 미시건 크레스치아트뮤지엄(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첼시아트뮤지엄(2010), 뉴델리 트라반코갤리스(2010), 뉴욕 화이트박스갤러리(2007)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1년 런던 사치갤러리의 <Painting>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한다.

왼쪽 <야단법석(Hurlyburly)> 캔버스에 아크릴릭, 스프레이 페인트 183×152cm 2010 | 오른쪽 <병상(Sick bed)> 보드에 아크릴릭 콜라주 31×23cm 2010 | 오른쪽 페이지 <초안(Draft)> 혼합재료 가변크기 2009

Haeri Yoo

